DBpia

원광(圓光)의 점찰법회(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The Jeomchal Buddist Mass : its Initiation and Historical Meaning

저자
(Authors)

박광연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43, 2002.03, 111-140 (30 pages)
YŎKSA WA HYŎ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43, 2002.03, 111-140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02203

APA Style

박광연 (2002). 원광(圓光)의 점찰법회(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43, 111-1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9 10: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광(圓光)의 점찰법회(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박 광 연*

머리말
1. 점찰법회(占察法會)의 시행배경
1) 원광의 유학과 중국 점찰법회
2) 원광의 귀국과 대중교화
2. 점찰법회의 시행
1) 시행시기와 장소
2) 법회의식과 신앙대상
3. 점찰법회 시행의 성격 및 의의
맺음말

머 리 말

고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말할 때 항상 의문으로 남는 점은 왕실의 지원 하에 불교가 수용되어 전 사회로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민에게는 불교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갔는가이다. 즉 보다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불교 수용이 고대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의 실마리를 원광의 점찰법회(占察法會) 시행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 이화여대 사학과 석사 졸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점찰법회란[1] 점찰법(占察法)을 행하는 법회다. 간자(簡子)를 이용하여 개인의 전생의 숙업을 알아봄으로써 현재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행을 행하는 의식이다. 지금까지 원광에 대한 연구는 그의 생애 및 행적,[2] 그가 만든 세속오계의 사회·사상사적 의미,[3] 그리고 불교교학 연구의 내용 및 사상[4]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5] 원광이 점찰법회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6]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못한 상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첫째는, 원광이 점찰법회를 알게 된 배경에 관해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원광이 중국 삼계교의 영향으로 점찰법회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삼계교와 점찰법회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삼계교는 어떠한 교단이며, 과연 원광이 시행한 점찰법회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당시 이미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던 점찰법회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삼국유사』 원광서학조에 나오는 '점찰보(占察寶)'란 점찰법회를 위한 일종의 계조직이므로, 이때 점찰법회가 시행되었다고 봐야 한다(김영태, 1972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연구」 『불교학보』 9)는 견해가 제시된 이후 모두들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신종원, 1992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최연식, 1995 「圓光의 생애와 사상 – 『三國遺事』 「圓光傳」의 분석을 중심으로 – 」 『태동고전연구』 12

3) 신현숙, 1987 「淨土敎와 圓光世俗五戒의 考察」 『한국사연구』 61·62 ; 이종학, 1990 「圓光法師와 世俗五戒에 대한 新考察」 『신라문화』 7

4) 이기백, 1968 「원광과 그의 사상」(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재수록) ; 정병조, 1981 「圓光의 菩薩戒思想」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미선, 1998 「新羅 圓光法師의 如來藏思想과 敎化活動」 『韓國思想史學』 11 ; 최연식, 1995 앞의 논문

5) 그 밖에 정영호, 1973 「圓光法師와 三岐山 金谷寺」 『사총』 17·18 ; 조원영, 1999 「신라 중고기 불교의 밀교적 성격과 약사경」 『부대사학』 23 등이 있다.

6) 이기백, 1968 앞의 논문 ; 정병조, 1981 앞의 논문 ; 신종원, 1992 앞의 논문 ; 최연식, 1995 앞의 논문 ; 박미선, 1998 앞의 논문에서 점찰법회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둘째는, 원광이 귀국한 후 가슬갑사라는 곳에서 점찰법회를 연 것이 왕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국가·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광이 청도의 가슬갑사에서 점찰법회를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려 한다.

셋째는, 원광이 시행한 점찰법회의 성격에 대한 평가의 문제다. 지금까지는 그 성격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무격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 연구와[7] 이 견해를 부정하면서 무격신앙을 극복했음은 물론 민간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대승교학사상의 실천적 방편이었음을 강조하는 입장의 연구가 있다.[8] 대부분이 후자의 견해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원광이 여래장사상 등 불교교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점과, 점찰법회의 소의경전이라 할 수 있는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이하 『점찰경』이라 함)의 교설에 근거하여 점찰법회의 불교사적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점찰법회의 성격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점찰법회를 접한 사람들의 신앙체계가 어떻게 변해갔으며, 그것이 신라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무격적 성격이 강한지 불교적 성격이 강한지를 논하기 이전에 실제 점찰법회가 신라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원광이 점찰법회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점찰법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추론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점찰법회의 사회·사상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

7) 이기백, 1968 앞의 논문

8) 정병조, 1981 앞의 논문 ; 신종원, 1992 앞의 논문 ; 최연식, 1995 앞의 논문 ; 박미선, 1998 앞의 논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1. 점찰법회(占察法會)의 시행배경

1) 원광의 유학과 중국 점찰법회

원광은 진흥왕 11년(550)경에 출생하였고, 진흥왕 36년(575)경에 진(陳)으로 유학갔다.[9] 원광의 유학은 처음에는 불법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가 성장하던 신라 진흥왕대는 정복사업의 확장과 중국과의 활발한 대외교섭이 이루어지던 때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중국의 언어와 문물을 배워 올 학생들을 유학보냈을 텐데, 원광도 그 유학생 중의 한 명으로 뽑히어 중국에 간 것으로 보인다.[10]

원광이 중국에서 처음에 머물렀던 곳은 진(陳)의 금릉이다. 당시 진나라는 황제의 후원 속에서 불교가 매우 융성하였었다. 진 선제(宣帝, 569~582)는 담원(曇瑗)을 승정(僧正)으로 임명하여 계율로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법회(法會)·강회(講會) 등을 자주 개최하였다. 뒤이은 후주(後主, 582~589.1)도 마찬가지였다.[11] 그곳에서 원광은 승민이라는 고승의 제자에게 강론을 듣고선 '그동안 생명이 끝나는 데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불교의 귀의하였다.[12] 금릉에서 여러 해 강석을 돌아다니며 불법을 익히다가 오군(吳郡)의 호구산(虎丘山)에 들어가 수

9) 이 글은 원광이 시행한 점찰법회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하므로, 원광의 생몰·활동 연대 및 행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특히 최연식의 견해를 많이 따랐다.

10) 진흥왕 이래로 승려의 중국유학에 국가가 개입하였다고 한다(남동신, 2000 「신라의 승정기구와 승정제도」『한국고대사논총』 9, 150쪽). 그렇다면 원광과 같은 유학생의 파견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11)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3 ·南北朝の仏教(上)』 東京大學出版會, 241~248쪽 참고.

12) 『속고승전』 권13, 唐新羅國皇隆寺釋圓光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행하였고, 중생교화 활동도 펼쳤다. 그 뒤 새로운 불법을 익히고자 수(隋)의 수도 장안(長安)으로 옮겼고, 진평왕 22년(600) 귀국할 때까지 장안에 머물렀다.

당시 장안을 비롯한 북조는 건덕(建德) 3년(574)~7년(577)에 걸친 무제(武帝, 560~578)의 탄압으로 불교계의 피해가 매우 컸다. 북제의 토벌을 위해 부국강병책을 꾀하던 무제는 불교와 도교 교단의 존재를 부인하여 모든 불사(佛寺)·도관(道觀) 및 예배상(禮拜像)을 없애고, 승려·도사를 환속시켰다. 577년 북제의 멸망에 즈음해서는 그 영향이 점령지 산서, 하남, 하북, 산동지방까지 미칠 정도가 되었다.[13] 무제가 죽고 선제(宣帝, 578~579)가 즉위하면서 불교 부흥을 꾀하고, 그 후 수 문제 양견(楊堅)도 남북조를 통일한 뒤 불교를 국가중흥의 기치로 내세웠지만 이미 불교의 수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말법도래를 실감하게 되었다.[14]이에 민간에서는 불교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15]

점찰법회는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다음의 기록을 통해 중국 점찰법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A. 개황(開皇) 13년(593) 광주(廣州)에 참법을 행하는 한 승이 있었다. 가죽으로 첩자(帖子) 2장을 만들어 선악(善惡) 두 자를 각각 써서 사람들에게 던지게 하였는데, 선자(善字)을 얻으면 길하다 하였다. 또 자박참법(自撲懺法)을 행하여 죄를 멸하게 하였다. 남녀가 서로 섞여 망령되이 밀행(密行)을 받들었는데, 청주(靑州)에서도 이 소문을 접하고 똑같이 행하였다. … (왕이) 내사시랑 이원찬(李元撰)에게 명하여 대흥사(大興寺)에 가서 여러 대덕들에게 물어

13) 이영석, 1986「北周의 佛敎復興政策에 관한 연구－宰相 楊堅을 중심으로－」『경남사학』3

14) 信行의 三階敎, 道綽(562~645)의 아미타정토교, 그에 앞선 靈裕에 의한 資山석굴 조성, 靜琬에 의한 房山石經刻造 사업 등은 말법의식이 팽배해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中村元·笠原一男·金岡秀友, 1975『アジア佛敎史·中國編Ⅰ－漢民族の佛敎：佛敎傳來から隋·唐まで』佼成出版社, 190쪽 참고

15) 김문경, 1984「山東佛敎의 性格」『숭실사학』24, 106~108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보게 하였다. 대사문 법경(法經), 연종(彦琮)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점찰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머리에 수나라의 보살등(菩提登)이라는 외국 사문이 번역한 글이라 하였으니 근래에 나온 듯하다. 또한 사본으로 전하는 것들이 있어 여러 기록들을 검토해 보니 정명(正名)·역인(譯人)·시처(施處)가 없고, 탑참법도 여러 경전과 다르므로 (이에) 의거하여 행함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칙령으로 이것을 금하였다.[16]

이 자료는 『당고승전』의 기록을 일연이 인용한 것으로,[17] 593년 광주(廣州)와 청주(靑州)에서 점찰법회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권12)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다르다.

B. 광주에 한 승이 있어 탑참법(塔懺法)을 행하였다. 가죽으로 2장의 첩자(帖子)를 만들어 하나에는 선자(善字)를 쓰고, 다른 하나에는 악자(惡字)를 썼다. 사람들에게 던지게 하여 선자를 얻으면 좋고, 악자를 얻으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 자박법(自撲法)을 행하여 죄를 멸하게 하였는데 남녀가 섞여 있었다. 청주에도 한 거사가 있어 이 법을 똑같이 행하였다. 개황 13년(593)에 어떤 사람이 광주관사에 고하기를 "요망하다" 하였다.…[18]

A에서는 593년에 광주의 한 승이 점찰법회를 행했다고 하였는데, B에서는 593년은 점찰법회의 소문을 들은 광주관사가 사태 조사에 나선 해라고 하였다. B의 기록을 따른다면 점찰법회는 593년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역대삼보기』가 비장방(費長房)에 의해 개황 17년(597)에 편찬된 책이고, 『당고승전』은 당대(唐代)의 승려 도선(道宣,

16) 『삼국유사』 권4 의해5 眞表傳簡

17) 『속고승전』 권2 隋 東都 翻濱 上林園 翻經館 南賢豆 沙門 達摩笈多傳에 그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18) 『新修大藏經』 권49 史傳部, 106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596~667)이 편찬한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보다 B의 기록이 더욱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점찰법회는 593년 이전부터 벌써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점찰경』이 등장한 뒤 곧장 중국의 남부에서 점찰법회가 행해졌고, 곧이어 금릉지방에서도 일반의 남녀들이 점찰법회를 행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9] 『점찰경』의 등장은 진말(陳末) 수초(隋初), 즉 580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니 점찰법회는 580년경~593년 사이에 중국에서 성행하였다.

점찰법회가 실제 행해졌다는 광주·청주 두 곳의 위치를 찾아보면, 광주는 수대(隋代)의 남해군(南海郡) 즉 오늘날의 광동성에 해당하고,[20] 청주는 수대의 북해군(北海郡) 즉 오늘날의 산동성에 해당한다.[21] 그렇다면 580년경 이후 중국의 남부에서 시작된 점찰법회가 593년에는 북해군의 청주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점찰법회가 성행하던 시기(580년경~593)는 원광이 중국에 머물렀던 시기(575년경~600)와 비슷하다. 또한 점찰법회가 행해지던 금릉을 비롯한 남부지역 및 광주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여러 지역은 원광의 행적과 많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금릉에 있으면서, 금릉에서 오군으로 이동하면서, 혹은 장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던 점찰법회를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개황 13년(593) 장안에서는 『점찰경』의 진위 여부와 점찰법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결국 그 유포와 시행이 금지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장안에 있었던 원광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같이 볼 때, 원광은 중국유학시 점찰법회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런 경험이 그

19) 채인환, 1986 「신라 진표율사 연구(Ⅰ)」 『불교학보』 23, 31쪽

20) 『隋書』 권30 志25 地理 中

21) 『隋書』 권30 志24·25·26 地理 上·中·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가 신라에서 점찰법회를 시행하게 된 간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원광이 점찰법회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삼계교가 언급되고 있다.[22] 그런데 삼계교와 중국의 점찰법회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삼계교에서 점찰법을 행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점찰법회에서와 같은 신앙행위도 없었던 듯하다.[23] 미타일념(彌陀一念)의 정토교를 비판하던 초기 삼계교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예참(禮懺)을 강조하는 신앙행위를 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삼계교와 중국의 점찰법회는 그 성립배경을 달리한다. 삼계교는 불교교학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을 중요시하였고[24] 상주 · 장안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반면에, 점찰법회는 민간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점찰경』에 의거하여 광주 · 청주 등의 지방에서 성행하였다. 점찰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경』이 등장 초기부터 위경(僞經) · 의경(疑經)으로 의심받아 그 유포를 금지당하다가 측천무후 때의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에 가서야 진경(眞經)으로 인정받게 되는 데 반해, 삼계교적(三階敎籍)은 같은 『대주간정중경목록』에서 위경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듯 삼계교와 점찰법회는 분명 그 근원과 전개가 다르다. 따라서 원광이 점찰법회를 시행한 배경으로 삼계교

22) 민영규, 1993 「신라 불교의 정립과 삼계교」 『동방학지』 77 · 78 · 79 ; 정병조, 1981 앞의 논문 ; 박미선, 1998 앞의 논문

23) 삼계교와 지장신앙과의 길함은 현장역 『大乘大集地藏十輪經』, 실차난타역 『地藏菩薩本願經』의 유행과 더불어 神昉법사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矢吹慶輝, 1927 앞의 책, 638~642쪽). 그리고 원광이 설치한 점찰보의 시원으로 보고 있는 無盡藏院의 경우도 신행 당시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설치 운영한 것은 唐 武德年間부터였다.

24) 信行(540~594)에 의해 시작된 삼계교는 육조 이래 중국불교의 일반적인 흐름과 많이 달랐지만(『歷代三寶記』 권12 ; 『신수대장경』 권49, 105쪽), 신행의 보불심앙을 길러준 사람이 靈裕라는 점에서 당시 불교교학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常盤大定, 1925 「三階敎の母胎としての寶山寺」 『宗敎硏究』 4-1). 오히려 한 경전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경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大野法道, 1927 「三階敎の硏究」 『宗敎硏究』 4-5, 14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를 언급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원광의 귀국과 대중교화

진평왕 22년(600)에 귀국한 원광이 신라에서 활동하던 때는 진평왕(579~631)의 집권 후반기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직계(동륜계)와 방계(진지계) 간의 권력다툼 속에서 진지왕이 즉위 4년 만에 폐위된 뒤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25] 왕권의 안정을 깊이 꾀하였다. 중앙관제를 정비하고[26] 친수(親隋)정책을 폈으며, 지방융화정책을 추진하여 지방행정구역도 정비하였다.[27] 한편 대외적으로는 602년에 백제 무왕이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진흥왕대 이후 소강상태였던 백제·고구려와의 무력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28]

이 시기 불교계의 상황은 왕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교수용이 계속되고 있었고, 나아가 왕족을 석가족(釋迦族)과 동일시하려는 인식마저 나타났다. 진평왕은 '왕은 천손(天孫)'이라는 기존 인식을 대신하여 '왕족은 석가족'이라 내세움으로써, 불법에 의해 왕실의 권위를 부여받으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석신앙(帝釋信仰)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당시 신라는 불교를 여전히 치국의 방편으로 이용하였고,[29] 나아가 신앙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원광이 귀국하였을 때 진평왕은 그를 공경하여 성인처럼 우대하였다고

25) 이정숙, 1994 「진평왕의 즉위를 전후한 정국동향」 『부산사학』 27 ; 김덕원, 1999 「신라 중고기 사륜계의 정치활동」 『백산학보』 52

26) 김두진, 1990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 – 삼국유사 소재 '도화녀·비형랑' 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 이정숙, 1995 『신라 진평왕대의 왕권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27) 주보돈, 1979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3, 30쪽

28)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3년

29) 장지훈, 1998 「신라 中古期의 護國佛敎」 『한국사학보』 3·4, 16~19쪽

30)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서학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한다.[30] 그리하여 원광은 진평왕의 후원 하에 여러 경로로 신라사회에 참여하였다. 그는 각종 외교문서를 비롯하여 걸사표를 작성하였고, 진평왕 35년(613)에는 황룡사에서 열린 백고좌법회에 상수(上首)로서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호국적'이라 평가되는 이런 활동은 7세기 들어 백제와 고구려의 빈번한 침략으로 긴박해진 신라의 상황 때문에 취한 행동이었다.

사료를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승려인 원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가 25년 간의 중국유학을 통해 익힌 불교를 홍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원광은 가슬갑사(嘉瑟岬寺)에서 매년 두 차례씩 『성실론』, 『반야경』, 『열반경』, 『섭대승론』 등 대승경전의 강의를 열었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원광은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슬갑사에 머물렀다.[31] 때문에 민의 삶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이 때 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에 동원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는 것이다. 7세기 이후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잦아져 지방민을 전면적으로 군사로 동원하는 횟수가 더 증가함에 따라, 축성 등에 지방민이 동원되던[32]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설씨녀 이야기'는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원광이 목격한 민의 삶은 바로 전쟁으로 지쳐가고 고통받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원광은 생이 끝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자신을 뉘우치며 불교에 귀의하였던 자다. 그는 분명 깨달음을 통해 죽음이 생의 끝이 아니며,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남이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원광이 전쟁 와중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민에게 부처의

31) 嘉瑟岬等를 찾아온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주었는데 이 일은 602년 8월 백제와의 아막성전투에서 귀산과 추항이 사망하기 이전의 일이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二十四年).

32) 이종욱, 1974 「남산신성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지방통치체제」 『역사학보』 64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가르침을 전하고자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방법을 잘 몰랐다. 그 동안 행해오던 경전의 강의만으로는 민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민에게는 경전을 읽을 시간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33] 원광은 민에게 불교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점찰법회의 시행이었다.[34]

2. 점찰법회의 시행

1) 시행시기와 장소

원광이 점찰법회를 시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은 단 하나뿐이다.

C. ㉠ 건복 30년 계유년(진평왕 35년) 가을에 수나라 사신 왕세의(王世儀)가 오니,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를 열고 여러 고덕들을 청하여 경을 설하게 하였다. 원광은 가장 상수(上首)에 거하였다. ㉡ (일연이) 논평하여 말하기를 "원종(原宗)이 불법을 일으킨 이래로 진량(津梁)은 비로소 설치되었으나 아직 당오(堂奧)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귀계멸참(歸戒滅懺)의 법으로 우미(愚迷)함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그러므로 원광은 주석한 가서갑사에서 점찰보를 열고 항규로 삼았다.[35]

---

33) 이기백은 민중들은 아직 불교를 이해하기에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격신앙에 좀더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이기백, 1968 앞의 논문, 106쪽).

34) 박미선, 1998 앞의 논문, 33쪽 ; 최연식, 1995 앞의 논문, 29쪽

35)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서학 "㉠ 建福三十年癸酉(卽眞平王卽位三十五年也)秋 隋使王世儀至 於皇龍寺 設百座道場 請諸高德說經 光最居上首 ㉡ 議曰 原宗興法以來 津梁始置 而未造堂奧 故宜以歸戒滅懺之法 開曉愚迷 ㉢ 故光於所住嘉栖岬 置占察寶 以爲恒規"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위 문장은 내용 구성상 ㉠, ㉡, ㉢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의 문장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두 일연의 논평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점찰법회의 시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의 문장을 일연의 논평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 전체 글의 구성을 보면, 「원광서학」조는 『속고승전』에 기록된 사실—『고본수이전』에 기록된 사실—『삼국사열전』 및 기타에 기록된 사실—일연의 논증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원광이 황룡사 백고좌법회에 상수로 참석했다는 것(㉠)과 가서갑사(가슬갑사)에서 점찰보를 열었다는 것(㉢)은 사실의 나열인데 그 가운데에 갑자기 일연의 논평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상하다.[36] 『삼국유사』 전체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실이 논평에 들어가는 용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의왈(議曰)'로 시작하여 일연이 논평하는 부분이 이 외에 다섯 군데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앞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37] 둘째는, '의(宜)'라는 표현이다. 일연이 굳이 '마땅히'라는 당위성까지 표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고 본다.

D. ㉠ … ㉡ 「원광은」 (그곳에 함께 참석한 고승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원종(原宗)이 불법을 일으킨 이래로 진량(津梁)은 비로소 설치되었으나 아직

36) 최연식도 『삼국유사』 원광서학조의 '議曰'의 용례가 다른 곳과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필사인 一然이 직접 견문한 사실을 적었기 때문일 것이라 보고 있다(최연식, 1995 앞의 논문, 11쪽).

37) 烏洛國記(기이2), 阿道基羅(흥법3), 南白月二聖 · 努肹夫得 怛怛朴朴(탑상4), 洛山二大聖 觀音 · 正趣 · 調信(탑상4), 良志使錫(의해5), 郁面婢念佛西昇(감통7)이 이에 해당한다. 일연의 논평이 아니면서 '議曰'이 쓰인 경우로는 新羅始祖赫居世王(기이1), 四十八景文大王(기이2), 慈藏定律(의해5)이 있다. 이 중에서 원광서학조의 '議曰'은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와 같은 용법이라 할 수 있다(前漢地節元年壬子 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閼川岸上 議曰 我君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당오(堂奧)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귀계멸참(歸戒滅懺)의 법으로 우미(愚迷)함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그리하여 …

즉 ㉡에서 '의왈(議曰)'의 주체가 원광이라 이해된다.[38] 이에 의하면 원광은 백고좌법회에 모인 승려들과 의논한 뒤에 곧 점찰법회를 시작하였으므로, 점찰법회의 시작은 진평왕 35년(613)이 된다.

613년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를 개최한 것은 수나라 사신 왕세의가 왔을 때였다. 왕세의의 신라방문은 신라의 출사 요청 및 수의 고구려 공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고구려의 계속되는 침략에 견디지 못한 진평왕은 동왕 33년(611) 수에 사신을 보내어 출사를 청하였다. 수 양제는 신라의 요청이 그의 고구려 원정 의지와 맞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였고,[39]

---

38) 이렇게 볼 경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原宗'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법흥왕의 이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원광이 아무리 승려라고 하지만 신하된 입장에서 왕의 이름을 함부로 칭했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런데 법흥왕이 '원종'이란 이름으로 당대에 불린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금석문을 살펴보면 법흥왕은 '牟卽智寐錦王'(「蔚珍鳳坪碑」), '另卽知太王'(「蔚州川前里書石」追銘) 또는 '聖法興大王'(「蔚州川前里書石」追銘)이라 불리고 있다. 여기에서 법흥왕의 이름은 '牟卽智=另卽知'였으며 '法興'은 시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譯註韓國古代金石文』 역주 참고). 그럼 '원종'은 언제 사용되던 이름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보살계를 받은 뒤의 계명, 즉 佛名일 수 있다. 삼국시대에 한자이름은 승려들의 이름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남풍현, 2000 『吏讀硏究』 태학사, 145쪽). 漢子人名이 나오는 중고기의 금석문으로는 「蔚珍鳳坪 眞興王巡狩碑」, 「磨雲嶺 眞興王巡狩碑」, 「戊戌塢作碑銘」, 「川前里書石 甲寅銘」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法藏, 悲忍, 智藏, 慧藏, 安藏은 모두 승려로 추정된다. 둘째는 법흥왕 사후에 '牟卽智=另卽知'라는 고유어를 한자식 이름으로 바꾸었을 수 있다. 異斯夫(원래는 伊史夫)를 苔宗으로, 居柒夫를 荒宗이라 한 경우와 마찬가지다. 여기서 원종이 법흥왕의 佛名이었다면, 승려가 신도의 불명을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 법흥왕의 한화된 이름이었다면, 원광이 직접 왕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후에 이 사실을 기록한 자가 표기에 변형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해 보건대 '議曰'의 주체를 원광이라 봄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하겠다.

3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3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612년 정월과 613년 4월의 두 차례에 걸쳐 출병하였다. 왕세의가 신라에 도착한 때가 613년 7월이니,[40] 그는 고구려에 대한 수의 2차 공격에 신라가 협력할 것을 요청하러 온 듯하다.[41] 그런데 왕세의가 신라에 도착했을 때는 그 해 6월에 일어난 양현감의 반란으로 수가 이미 군대를 철수시킨 뒤였다.[42] 그러므로 이 때 황룡사에서 열린 백고좌법회는 수의 패배를 위로하고, 수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이 컸을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백제와의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신라인들을 위무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의 백고좌법회에 참석한 것이 원광에게는 점찰법회의 실행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진량(津梁)은 마련되었으나, 당오(堂奧)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광은 당시 신라의 불교가 보다 근본적인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흥국이민(興國利民)이나 현실구복(現實求福)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을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또한 원광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편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백고좌법회에 참석하여 당시의 고승들과 '귀계멸참(歸戒滅懺)의 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찰법회'의 실행을 꾀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원광이 점찰법회를 시행한 곳은 당시 그가 머물고 있던 가슬갑사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원광이 귀국 직후에 왕경과 떨어진 가슬갑사로 내려온 것과 그 곳에서 지방민을 대상으로 점찰법회를 시행했다는 사실이 그의 국가·왕실 관련 여러 활동들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즉 원광이 왕경에 머물지 못하고 지방에서 살았다는 것은 왕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

4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5년

41) 唐代의 경우 장안에서 정주까지의 소요기간을 거리상으로 계산하면 3개월이라 한다(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214~220쪽). 隋代의 경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7월에 도착한 왕세의는 늦어도 고구려 2차 공격을 감행하던 4월에 수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42) 『수서』 권4 帝紀4 煬帝下 9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했거나 왕실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어서라고 한다.[43]

하지만 이런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원광의 귀국은 중국에서 떨친 원광의 명성을 들은 신라조정이 거듭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44] 조빙사와 함께 귀국했다는 점에서 그의 귀국이 국가와 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귀국 직후(600~602.8) 귀산과 추항이 그를 찾아가 세속오계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원광의 명망이 일찍부터 당시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원광은 '오직 식일 뿐, 보이는 것은 허망분별'이라는 유식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천성이 허정한 것을 좋아하였다는 점에서 신분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광이 가슬갑사에 주석한 배경에는 이 절의 지정학적 조건이 참조될 수 있다. 가슬갑사는 지금의 청도 운문사에서 동쪽으로 9천 보 되는 거리에 있었던 사찰로,[45] 진흥왕 때 건립되었다고 『운문사지(雲門寺志)』에 기록되어 있다.[46] 일반적으로 사지(寺志)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진흥왕 때 청도에 5갑사가 건립된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가슬갑사를 비롯한 5갑사가 위치한 청도는 통일신라 때 완성된 5통(五通) 중 해남통(海南通)이 통과하던 곳으로,[47] 통일 이전부터 신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흥왕이 함안의 아시량국(阿尸良國)을 공격하

43) 이기백, 1968 앞의 논문, 102~103쪽 ; 최연식, 1995 앞의 논문, 26~27쪽 ; 박미선, 1998 앞의 논문, 47쪽

44) 『속고승전』 권13 석원광전

45)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서학

46) 『雲門寺志』 雲門寺事蹟, 8쪽

47) 서영일, 1999 「新羅 五通考」, 『백산학보』 52

48)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新羅康州咸安郡. 원문에는 아시량국을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에도 아라가야는 계속 존속하므로 이 때 무력정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 DB 참조).

4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3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고,[48] 진흥왕이 동왕 23년(562) 고령 (대)가야의 반란을 토벌하는[49] 등 가야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경주 ~ 비사벌(比斯伐, 지금의 창녕)에 이르는 길은 중요한 병참선이었다. 또 진흥왕 15년(554)의 관산성 전투 이후 국방상 요충지로서 비사벌의 비중 자체가 점차 커졌다.[50] 이 과정에서 비사벌로 나아가는 중간거점이었던 청도 또한 그 중요성이 컸으리라 생각한다.[51] 또한 청도는 경주에서 밀양으로 가는 길과 경산에서 언양으로 가는 길의 교차로에 위치한 교통상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국방상 · 교통상의 요지에 국가는 사찰을 건립하곤 하였다. 영토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의 수행과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행정체제 정비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 · 역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사찰에 어느 정도 위임하기 위함이었다.[52] 소지마립간 9년(487)을 기점으로 신라의 역참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법제화되었지만,[53] 많은 인력과 물자를 먼 곳으로 옮길 때 기존의 역참시설로는 이동하는 인원의 숙식을 해결하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이 부족한 부분을 사찰이 보충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후대의 사실이긴 하지만 선덕왕 3년(782) 창녕의 인양사(仁陽寺)에서 근처의 신

50) 비사벌에 下州停을 두고 군주를 파견하였으며(주보돈, 1979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3, 19쪽), 진흥왕 22년(561)에는 왕이 직접 하주를 순수하기도 하였다(「昌寧 眞興王拓境碑」, 『역주한국고대금석문(Ⅱ)』).

51) 이기동은 6幾停 가운데 서쪽 방면에 있었던 豆良彌知停(西幾停)이 청도군 서남부지역에 있었다고 하면서 청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였다(1997 「신라 중고기 청도 산시지방의 전략적 중요성 - 서기정의 기원문제에 부쳐서」 『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42~58쪽).

52) 김영미, 1997 「신라사회의 변동과 불교사상」 『한국사상사방법론』, 83쪽

5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里官道" ; 서영일 1999 『신라육상교통로연구』, 58~63쪽 참조.

54) 하일식, 1996 「昌寧 仁陽寺碑의 硏究 --8세기말~9세기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한국사연구』 95, 32쪽. 이 글에서는 곡식을 준 주체가 승려 개인이라 하였는데, 승려에게는 사유재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찰의 임무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영미, 1997 앞의 논문, 83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열(辛熱) · 유천(楡川) 2역에 곡식 102석을 주었다는 기록에서[54] 역에 곡식을 내는 일도 사원의 역할 중 하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5갑사의 건립도 역참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55]

7세기 들어 백제와의 전쟁이 임박하자 5갑사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평왕은 5갑사를 맡길 가장 적당한 인물로 원광을 지목하고, 그에게 운영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는 승정제도(僧政制度)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진평왕의 이런 요청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원광이 가슬갑사에서 점찰법회를 개최한 것이 왕실과 거리를 둔 채 이루어졌다거나 왕실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광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중생을 부처의 가르침으로 구원하기 위해 점찰법회 시행을 도모했던 것이다.

2) 법회의식과 신앙대상

원광이 613년 시작한 점찰법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회였을지 궁금하다. 여기에는 우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광이 『점찰경』을 가지고 귀국하여, 그에 근거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점찰경』 없이 그가 경험한 중국 점찰법회의 방법을 모방하여 진행했을 가능성이다.

중국에서의 행적을 더듬어 볼 때, 원광이 중요시했던 것은 교학 연구와

55) 『고려사』 권82 병지2 站驛과 『동국여지승람』 권26 淸道郡 驛院에 의하면, 청도에 西之驛과 買田驛이 있는데 두 역이 모두 경주에서 청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으며 5갑사와 매우 가깝다. 그러므로 이 두 역이 5갑사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운영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본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수행이었으므로 그가 외도적으로 점찰법회를 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 각지의 민간에서 점찰법회를 널리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광도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가 중국의 점찰법회에서 '점찰'이라는 방법과, 법회에 많은 남녀신도들이 모여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 『점찰경』을 가지고 귀국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56] 또 만약 원광이 『점찰경』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다면, 귀국 후 일찍부터 점찰법회를 시행하려 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광은 『점찰경』에 직접 근거하지 못하고, 다만 중국에서 봤던 점찰법회를 모방하고 나름대로 변용시켜 신라 사정에 맞는 점찰법회를 시행하였을 것이라 봄이 좋을 듯하다.

원광은 점찰법회를 통해 귀계멸참의 법을 실현하려 하였다. 여기서 귀계란 삼귀의(三歸依) 또는 삼귀계(三歸戒)와 같은 뜻으로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계법을 말하고, 멸참이란 죄를 멸하기 위한 참회를 말한다. 즉 귀계멸참의 법이란 계율을 지키고 참회를 행함을 의미한다. 원광은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가슬갑사의 점찰법회는 곧 소문이 퍼져 진평왕대(579~631)에 선도산(仙桃山)의 안흥사(安興寺)에서도 열렸다. 지혜라는 비구니가 봄·가을 두 계절의 10일에 일체함령(一切含靈)을 위해서 점찰법회를 열고 이를 항규로 삼았다.[57] 통일을 전후해서는 금강산 동쪽의 도량사(道場寺)에서 사복(蛇福)과 그의 어머니를 추선하기 위한 점찰법회가 열렸다.[58] 이렇듯 안흥

56) 개황 13년(593) 이후 『점찰경』의 유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57) 『삼국유사』 권5 감통7 仙桃聖母隨喜佛事

58) 『삼국유사』 권4 의해5 蛇福不言

59) 안흥사의 점찰법회가 '一切含靈'을 위함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含靈이란 三界의 모든 靈魂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大漢和辭典』 권2 ; 『大寶積經』 권38). 그러므로 현세에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사와 도량사의 점찰법회에서는 추선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59] 원광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점찰법회에서 추선이 행해졌다면, 가슬갑사의 점찰법회에서도 죽은 자를 추선하는 의식이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점찰법회 의식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우선 남녀 신도들을 모아놓고, 하나에는 선(善) 또 하나에는 악(惡)이라고 쓴 두 개의 간자를 개개인에게 던지게 하여, 선·악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찰의식을 행하였을 것이다. 선·악의 결과는 자신이 전생에 쌓은 죄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설명해 줌으로써, 악자가 나왔을 경우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하였을 것이다.[60] 이처럼 살아있는 개개인을 위한 점찰과 참회 의식을 행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추선을 행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수계의식을 행함으로써 법회를 마쳤을 것으로 그려진다.

한편 통일 후 신문왕대(681~691)에는 왕경의 흥륜사에서 점찰법회가 열리고 있는데, 원광 당시의 점찰법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 E. 이 때 개사(開士) 점개가 흥륜사에서 육륜회(六輪會)를 설하고자 하여 복안의 집에 와서 권화하자 복안은 베 50필을 보시하였다. 점개가 주문을 외우며 기원하기를 "단월께서는 보시하기를 좋아하시니 천신(天神)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61]

---

60) 중국의 점찰법회에는 塔懺法과 撲懺法이라는 참회법이 있었다. 탑참법은 '탑돌이'의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박참법은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잘못을 생각하는 도교의 自搏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楊聯陞, 1961 「道教之自博與佛教之自撲」 『塚本博士頌壽記念佛教史學論集』, 961~962쪽). 원광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참회하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다.

61) 『삼국유사』 권5 효선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62) 『占察善惡業報經』 上(『한글대장경』 77, 49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여기에서 육륜회(六輪會)란 『점찰경』에 나오는 십륜·삼륜·육륜의 점찰법 중에서 육륜의 방법으로 행하는 점찰법회를 말한다.[62] 그렇다면 신문왕대의 점찰법회는 『점찰경』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문왕대 대당외교가 재개되면서 중국에서 경전들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F. (신문왕이) 사신을 당에 보내어 예기(禮記)와 문상(文章)에 관한 서적을 청했더니 당주(唐主) 측천(則天)이 소사(所司)로 하여금 길흉요례(吉凶要禮)를 등사하고, 또 문관사림 중에서 규잠(規箴)에 관한 글을 선택하여 50권을 만들어 주게 하였다.[63]

이 기록에서 신라의 요청에 의해 신문왕대에 유교의례와 문장에 관한 저술이 당으로부터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천무후 때의 중국불교를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불교경전도 새롭게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84년 무주혁명(武周革命)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측천무후는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라 칭하면서 불교를 옹호하였다. 측천무후는 무주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명전(明佺) 등에게 명하여 『대주간정중경목록』을 만들게 하였다. 그래서 이 목록에는 종래 의경이었던 것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진경으로 입장(入藏)된 것이 많았다.[64] 개황 연간에 그 유포가 금지되었던 『점찰경』도 이 때 진경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측천무후 주변의 불교계 인사들은 이미 『점찰경』의 내용을 긍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대(唐代)에 들어와 점찰법회가 다시 크게 유행함에 따라[65] 『점찰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찰경』이 점찰

6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6년

64) 측천무후는 『大雲經』, 『寶雨經』 등이 무주혁명의 실마리를 여는 데 공헌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 새로 入藏目錄을 정하려 하였다(牧田諦亮, 1964 「中國佛教における疑經研究序說 – 敦煌出土疑經類おぬぐつて」 『東方學報』 35, 350~351쪽).

65) 채인환, 1986 앞의 논문, 3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법회가 성행하던 신라에 전래되었고, 그 결과 신라에서도 『점찰경』에 근거하여 보다 불교적으로 세련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점찰법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통일 이후 원효를 비롯한 많은 승려들에 의해 교학연구의 성과가 축적되고,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광의 점찰법회에서 참회를 행하며 이루어지던 신앙행위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서는 언급된 자료가 없다. 다만 선도산의 안흥사에서 점찰법회를 열기 전에 주존 삼상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불과 6류성중 및 모든 천신과 5악의 신군을 그렸다는 기록이 전하는데,[66] 이에 근거하여 원광이 행한 점찰법회의 신앙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 선도산의 점찰법회가 가슬갑사 점찰법회의 소문에 의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둘의 성격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흥사에는 주존 삼상의 본존이 상수(上首)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며, 나

66) 『삼국유사』 권5 감통7 仙桃聖母隨喜佛事

67) 현존하는 선도산 마애불의 명칭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本尊佛	左脇侍菩薩	右脇侍菩薩
문명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강우방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신종원	석가불	미륵보살 · 지장보살	

문명대는 이 불상이 『삼국유사』 仙桃聖母隨喜佛事條의 설화와 유관하다고 하면서도, 그 연대는 진평왕대 이후로 보고 있다(문명대, 1969 「慶州 西岳 佛像 – 선도산 및 도대리 마애삼존불에 대하여」 『고고미술』 104). 강우방도 본존불은 북제 · 북조불의 양식과 유사하나 양협시보살은 隋 또는 唐初의 양식이므로 삼존불의 조성시기는 650년경이라 하여, 진평왕대의 조상은 아니라고 본다(강우방, 1997 「仙桃山阿彌陀三尊大佛論」 『미술자료』 21). 그렇다면 현존하는 선도산의 삼존불과 『삼국유사』의 설화에 나오는 안흥사의 주존 삼상은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현존하는 선도산의 삼존불의 본존은 아미타불이지만, 안흥사의 본존은 아미타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머지 보살 · 53불 · 성중 · 천신 · 산신 등은 본존의 설법을 듣고, 본존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선도산 안흥사 본존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67] 오늘날 남겨진 불상들을 살펴보면, 7세기 초반 신라의 불상은 대부분 석가와 미륵이다.[68] 특히 당시에는 삼존불상의 조각이 유행하고 있었는데,[69] 이들 삼존불의 본존도 대부분 석가나 미륵으로 추정되고 있다.[70] 이는 당시 신라사회에 석가신앙, 제석신앙, 미륵신앙이 성행

68) 용문석굴 불상 중 고유존상명 · 紀年이 남은 것(塚本善隆, 『支那佛敎史硏究 – 北魏篇』, 375~379쪽)

	석 가	미 륵	아미타	관세음
501~550	15	35	0	12
551~600	4	1	1	1
601~650	1	2	11(640~650)	5
651~700	8	10	101	22

용문석굴의 조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세기 중국에서는 석가와 미륵의 조상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삼국의 불상 조상이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세기 초반의 신라에 석가나 미륵의 조상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은 당연하다.

69) 禪房寺의 三尊石佛立像, 선산 금동불 · 보살상, 단석산 마애조각군의 삼존불 등이 있다. 조금 후대의 것으로는 삼화령의 삼존석상, 良志에 의한 영묘사의 장육삼존상, 법림사의 삼존불 등이 있다.

70) 강우방, 1995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 문명대, 1980 앞의 책 ; 황수영, 1989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71) 한편 원광의 점찰법회에서 지장보살이 신앙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점찰경』의 說主가 지장보살이며, 지장보살에게는 利他 일변도의 중생구제가 강조되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신종원, 1992 앞의 논문, 227쪽 ; 박미선, 1998 앞의 논문, 33쪽). 그런데 원광이 반드시 『점찰경』에 의거하여 법회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利他의 중생구제를 서원하지 않은 보살은 없었다는 점에서 위의 견해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하겠다. 지장보살은 석가여래의 입멸 뒤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56억 7천만년 사이의 無佛時代에 末法의 세계에 사는 많은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일체 중생의 모든 죄업과 장애를 없애주는 존재로 여겨졌음이 특징이다.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은 북주폐불 이후 말법의식이 널리 확산된 이후에야 성행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말법'에 대한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던 중고기의 신라사회에서(김영미, 1994 「신라사회의 변동과 아미타신앙」 『신라불교사상사연구』, 237쪽)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을 굳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했던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선도산 안흥사의 본존도 석가 또는 미륵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고, 점찰법회의 주요 신앙대상은 석가 또는 미륵이었을 것이다.[71]

여기서 석가나 미륵을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석가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경지에 듦으로써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 부처(佛)가 된 분이며, 미륵은 도솔천에서 장차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는 분이다. 부처란 인간을 주재하고, 인간과 직접 교감한다고 생각하였던 기존의 신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들도 부처에게 귀의하였다고 함으로써 부처는 신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의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런 부처라는 존재의 상정과 그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종교적 · 정신적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처음 불교를 접한 이들이 부처와 기존의 신들과의 차별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안흥사의 벽화에는 불 · 보살 외에도 천신 · 산신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체계가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보여준다. 즉 전통적 신관념 속에 새로 부처라는 불교적 존재가 포함되고, 나아가 점차 기존의 천신 · 산신을 대신하여 부처가 최고의 신앙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점찰법회 시행의 성격 및 의의

불교에서는 원래 점치는 행위를 금한다고 한다. 『점찰경』에서도 '세간의 복서(卜筮)와 갖가지 점 · 상 · 길 · 흉 등의 일에 따르고 쫓아 탐착하거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고기의 신라사회에서 지장신앙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72) 『新修大藏經』 권17, 902b 「占察善惡業報經」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나 즐거이 익히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즐거이 익히는 이면 거룩한 도를 깊이 막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72] 그렇다면 점찰법과 세간의 복서는 무엇이 다르기에 원광은 점찰법회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불교의 점찰법과 세간의 점복은 행위는 같았지만 드러난 점괘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 세간에서의 점치는 행위는 평범하고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의 여러 문제들을 비범하고 초월적인 존재(천신 · 조상신 · 잡신 등의 신)에게 그 원인과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점괘를 신의 뜻이라 받아들인다. 오로지 신에 의지하여 현재의 괴로움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점복행위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의 외경심에서 비롯된 전통적 신앙행위의 하나였다.

반면 불교의 점찰법에서는 점괘를 자신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이해한다. 현재의 고락길흉(苦樂吉凶)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선 · 악의 업보가 모여서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해석 속에는 불교의 기본논리인 '삼세윤회설(三世輪回說)' '업설(業說)'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아울러 참회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현재의 괴로움의 원인을 찾게 하며, 또한 존재의 주체적 각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심성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내적인 자기관조를 요구하는 유식의 사상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신라사회에서 불교교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원광이 점찰법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원광이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점찰법회를 선택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신라인에게 토착신앙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인들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그에 대한 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사를 의례적으로 행하였고, 초월적 존재와 인간이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여 그 매개자인 샤만을 중요시하였다. 꿈을 꾸었다거나, 자연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때면 당연히 샤만을 통해 점을 쳤다. 그러므로 시기에 알맞게 교훈을 폈고자 했던 원광은 토착신앙의 전통이 강한 신라의 민에게 '점찰법' 이라는 친근한 방법으로 다가갔다. 즉 원광은 '점찰' 이라는 토착신앙적 행위에 불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불교의 홍포를 꾀했던 것이다.

원광이 시행한 점찰법회는 신라사회에서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던 듯하다. 이 점을 중국의 사정과 비교해 보면, 신라에서 점찰법회가 지니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는 개황 13년(593)에 점찰법회가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표면적으로는 고승들이 『점찰경』을 의경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에 『점찰경』 외에도 의경으로 지목된 경전들이 많이 있었으나,[73] 이들 경전의 유포가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료 A에서 '남녀가 한 데 섞여 망령되이 밀행을 받들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법회를 위해 군집한 군중이 사회 저항세력으로 규합되지 않을까 하는 지배층의 위기의식이 그 유행을 막았던 것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재가불교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단체가 널리 존재했고 그 규모가 큰 조직도 있었다.[74] 점찰법회 금지의 보다 직

73) 梁 僧祐의 『出三藏記集』에는 20부 26권, 隋 法經의 『衆經目錄』에는 疑惑으로 55부 67권, 僞妄으로 141부 330권, 隋 彦琮 등의 『衆經目錄』에는 모두 209부 491권을 열거하고 있다(牧田諦亮, 1975 「中國佛敎史と疑經(一)(二)(三)」 『國譯一切經 三藏集』 2輯).

74) 예를 들면 民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던 『提謂波利經』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신앙결사가 개황연간에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존재했었고(塚本善隆, 1969 『支那佛敎史硏究 北魏篇』 淸水弘文堂書房), 武定 원년(543)에 완성된 하남성 滎陽郡의 비문에 의하면 邑義 五百餘人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鎌田茂雄저 · 정순일역, 1985 『中國佛敎史』, 경서원, 141쪽).

75) 『隋書』 高祖 13年 2月 丁酉. 중국의 도참은 정치사상 · 혁명사상과 관계가 밀접하였다. 역성혁명이 있거나 사회가 동요된 때에는 반드시 도참이 유행하였고, 이것이 실제 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접적인 이유는 수 문제가 '점칠' 행위 자체를 위험하게 여긴 데에 있었다. 수 문제는 개황 13년 2월 정유에 '사가(私家)에 위후도참(緯候圖讖)의 책을 감추어 둘 수 없다'[6]는 명을 내렸다. 강력한 통일왕조를 이룩하려던 그는 어떠한 도참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점찰법회도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 여겼기에 금지하였던 것이다.[76]

그렇다면 중국과 달리 신라에서 점찰법회가 적극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선 신라사회에는 '점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널리 보급되고 오래도록 신라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광이라는 고승이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원광은 점찰법회를 통해 개개인에게 현재와 내세의 안락을 기원해 주었고, 이미 죽은 자들을 추선하여 다음 세상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해 주었다.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신라인은 지배자나 영웅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거나 신이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민은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들에게 원광은 윤회를 말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현세보다 나은 내세가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77]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하였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신라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지배층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점찰법회는 신라사회에서 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최초의 정기적 법회였

활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2~20쪽).

76) 唐律에서도 妖書나 妖言을 만든 자는 교수형에 처하며, 傳하거나 用하여 衆을 미혹시킨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唐律疏議』 第268條 賊盜21 造妖書妖言).

77) 김영미, 2000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

78)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전. 한편 551년에 신라에서 백고좌법회가 행해졌다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점찰법회 이전에 법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흥왕 12년(551) 고구려 승 혜량(惠亮)에 의해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百高座法會)와 팔관회(八關會)가 처음으로 행해졌다.[78] 진흥왕 33년(572) 10월엔 외사(外寺)에서 전사한 장병을 위한 팔관회도 있었다.[79] 죽은 이들을 추선한다는 점에서 팔관회·점찰법회의 성격에 공통되는 바가 있으며, 전쟁이 치열하던 당시에 신라인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하지만 백고좌법회와 팔관회[80]는 국난극복과 국가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호국행사로 행해졌으며, 국가가 주도하였다. 반면 점찰법회는 승려 개인이 주도하였으며 민간에서 주로 행해졌다. 게다가 개개인의 참회와 수계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회와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이렇듯 계율과 참회를 강조한 정기적 법회가 신라사회의 민에게 미친 영향은 우선 부처라는 존재를 알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민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관념 속에서 부처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즉 그들의 지고신(至高神)인 천신이 호위하는 부처란 천신보다 높은 또 하나의 신이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처럼 부처에 대한 인식으로 신앙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체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경험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민은 현재 괴로움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도착신앙의 전통 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신에게 기도하는 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남동신, 2001 「新羅 中古期 佛敎治國策과 黃龍寺」『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2).

7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33년

80) 팔관회의 경우 개인 차원의 법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신종원, 1992 「6세기 신라불교의 남조적 성격」 앞의 책, 196~197쪽). 하지만 당시 신라의 팔관회는 국가 주도의 법회였음이 틀림없고, 민이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밖에 없었던 데에 비하면 이는 새로운 관념의 부여였다.

또한 내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점찰법회에서는 참회를 통해 현재의 죄업을 소멸시킴으로써 내세의 안락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 아울러 사자(死者) 추선을 통해 이미 죽은 자들도 다음 세상에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 하였다. 그리하여 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이는 업설과 윤회설에 입각한 불교의 내세관을 신라 민이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하였다.

맺음말

중고기 신라 민이 불교를 받아들인 구체적인 모습은 찾기 어렵다. 이 글에서 원광이 시행한 점찰법회를 통해 중고기 신라 민이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지만 부분적일 뿐이다. 본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다.

원광이 점찰법회를 처음 연 것은 진평왕 35년(613) 가슬갑사에서였다. 진평왕 22년 25여 년간의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원광은 왕의 요청에 의해 국방·교통의 요지인 가슬갑사에 주석하였다. 그 곳에서 원광은 사찰 운영은 물론이고 각종 국서 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승경전의 강의를 통해 불교를 홍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하나로 고구려·백제와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민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점찰법회를 열었다.

원광은 중국에서 경험했던 점찰법회를 모방하여 점찰법회의 의식을 마련하였다. 그는 『점찰경』에 내포된 여래장사상·유식사상보다는, '점찰'이라는 행위 때문에 점찰법회를 선택하였다. '점찰'이라는 방법이 토착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앙의 전통이 깊은 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원광은 선악의 업보를 점치고 길흉을 판단함으로써 업설·윤회설 등의 불교적 세계관을 인식시키고자 하였고, 참회와 수계를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죽은 자의 추선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하였다. 이런 원광의 의지가 신라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점찰법회는 널리 전파되었다.

점찰법회를 통해 민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 현재의 고통은 전생의 죄업에서 비롯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를 참회함으로써 내세에는 안락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생명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세에는 더 좋은 곳(부귀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신라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할 때문에 점찰법회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투고일 : 2002. 1. 20 심사완료일 : 2002. 2. 23
주제어 : 원광(圓光), 점찰법회(占察法會), 점찰(占察), 대중교화(大衆敎化), 가슬갑사(嘉瑟岬寺)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

Abstract

The Jeomchal Buddist Mass(占察法會) : its Initiation and Historical Meaning

Park, Kwang-Youn

This thesis investigates effect of the Jeomchal Buddhist Mass on people's religious life in the Silla Dynasty.

The Jeomchal Buddhist Mass, originally organized by WonGwang(圓光),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people believe in Budda. The Jeomchal Buddhist Mass, especially, is the first congregation for the populace. Examining it informs us of how the religion for populace variated in Silla Dynasty.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were the social and religious environments like when WonGwang initiated the Jeomchal Buddhist Mass? What made WonGwang, who started research of the Mahayana in Silla, hold the Jeomchal Buddhist Mass? Which rite was performed for it and what did believer pray for? What made it possible that the Jeomchal Buddist Mass gained popularity in Silla not in China? How did the buddhism affect the religious life of the populace in the Silla Dynas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omchal Buddhist Mass are also examined as well as further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totemism.

Following WonGwang, the Jeomchal Buddhist Mass was further developed by Jinpyo(眞表). The Jeomchal Buddhist Mass continued to be held during Goryeo Dynas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omchal Buddhist Mass become more complicated over time as its association with belief of Mireuk(彌勒) and Jijang(地藏) reveals.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Jeomchal Buddhist Mass for people's life in those days.

Key Words : WonGwang, Jeomchal Buddhist Mass, Jeomchal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09 10:17(KST)